

사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직무와 정신간호교육 요구: 혼합연구

안효자¹ · 배영주² · 조명숙³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¹,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², 광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³

Demands for Mental Health Nursing Education and Works of Nurses at Private Psychiatric Hospital: A Mixed Methods Research

An, Hyo-Ja¹ · Bae, Yeongju² · Cho, Myeong Suk³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eong University, Yeosu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Gwangyang,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mixed-method study was to identify the demand for mental health nursing education and work of nurses at a private psychiatric hospital. **Methods:** The survey of demand for mental nursing education was conducted by including 231 nurses at a private psychiatric hospital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7. Qualitative research by two focus groups was condu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8. **Results:** The mean of mental health nursing education demands according to major category were the therapeutic environment (4.27 ± 0.76), 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4.18 ± 0.68),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4.17 ± 0.64), respect for human (4.11 ± 0.74),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4.07 ± 0.74). The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nts' demands for mental health nursing education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discrimination power', 'communication techniques', 'psychiatric drugs', 'coping method', and 'legal issues'. **Conclusion:** Nurses with less psychiatric careers have strong need to learn a therapeutic environment and alcoholism, and nurses with more experience in psychiatry have education of humanities. Nurses at private psychiatric hospitals have high demand for continuous education of updated mental nursing to expand their extensive experience required for becoming more professional nurses in future.

Key Words: Psychiatric nursing; Work; Education, Nurs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은 1,554개이며 민간 정신전문병원인 사립정신병원은 317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1/5 정도이지만 병상 구성비로는 8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사립정신병원은 조현병을 비롯한 중증정신질환

자들로 평균 7개월 이상의 만성입원 환자 중심이며 보호 1종이 62% 이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복지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간호 인력의 전문성에서도 일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정신건강간호사보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타 영역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와는 다르게, 현실 판단과 사회적응이 어려운 환자에게 기본적인 간호행위뿐만 아니라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주요어: 정신병원 간호, 직무, 간호교육

Corresponding author: Cho, Myeong Suk <https://orcid.org/0000-0001-5425-7280>

Departmen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85 Daehak-ro, Gwangyang-eup, Gwangyang 57764, Korea.
Tel: +82-61-760-1465, Fax: +82-61-763-9003, E-mail: tmddnaudtnr@hanmail.net

Received: Aug 21, 2019 | Revised: Oct 3, 2019 | Accepted: Nov 22,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3] 전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즉, 정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특히 치료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통찰과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정신과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해본 경험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이러한 노력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인 병원 차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자아를 확장하고 총체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4].

사립정신병원의 경우에는 경력간호사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의 기회가 적었다[5]. 최근에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와 맞물려 경력간호사들이 대거 행정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경력간호사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규 간호사가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2,6]. 이러한 업무환경은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몰입을 감소시키고 결국 소진과 이직으로 연결되고 있다[2,7-9]. 특히, 정신과 근무부터 시작한 신규 간호사인 경우 더욱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따라서 정신과 근무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간호사의 인력관리와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7].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열정을 고취시키는 데는 ‘대상자와의 진정한 친밀감 형성’, ‘주도적 간호 수행과 치료과정에서의 참여’[2], ‘자기실현’[9],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유무’[11] 등이 있었다. Yang [12]은 간호사의 직무 만족은 환경적인 조건만큼이나 치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2,7,10,12]에서 정신병원 간호사의 열정과 직무 만족을 고취시키는 데 주도적 간호 수행과 전문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간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간호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정신의료기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국립정신병원은 전문인력이 많고 조현병 다음으로 범우병으로부터 의뢰된 환자가 많고, 종합병원 정신과는 환자의 입원 기간이 짧고 조현병 다음으로 우울증이 많았다. 반면 사립정신병원은 환자의 입원 기간이 길고 조현병 다음으로 알코올사용 장애 환자가 많고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1]. 이처럼 병원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간호사에게 필요한 교육도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의료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립정신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에서 필요한 정신간호교육을 양적연구로 파악하고, 정신간호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과 직무 기술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직무 기술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사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정신간호교육 요구를 파악한다.
- 사립정신병원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참여의향을 파악한다.
- 사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직무에 따른 정신간호교육 요구를 파악한다.
- 사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정신간호교육 요구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탐색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300명 이상 사립정신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신간호교육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질적연구결과를 보완한 혼합설계 연구이다. 이는 Morse 모형으로 양적연구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및 해석, 설명 등을 목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13]. 양적연구로 간호사의 직무에 따른 정신간호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질적연구로 필요한 정신간호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사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정신간호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로 성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성별 제외기준 없이 전라남북도와 광주 및 대구의 300명 이상 12개 사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자료는 한 병원당 최소 9개에서 최대 44개이며 평균 22개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통계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산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210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38명으로 충족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회수된 설

문지는 238부로 답변이 빠지거나 불성실한 자료 7부를 제외한 23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3명씩 2개의 그룹이었으며 면담은 조용한 커피숍과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주 질문은 ‘정신과 병원에서 필요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부가적인 질문으로 ‘정신과 간호사로서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신과에서 근무하면서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등이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사립정신병원에 3개월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일반 간호사로 정신간호교육 요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 교육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양적연구 설문지 문항에 노출되지 않았고 본 연구목적에 자필로 동의한 자이다. 양적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존중하였고 양적연구결과와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양적연구결과를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포커스 그룹의 크기는 6~10명씩 2~3개 그룹이 되었을 때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데[14], 본 연구에서는 중소 정신병원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면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3. 연구도구

1) 정신간호교육 요구

2014년도에 DSM-5를 반영한 정신간호학 학습목표 분류표에 있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사용하였다. 정신간호학 교수 1인과 정신과 근무 경험자 2인은 정신간호학 학습목표 분류표에서 소분류 303문항 중에서 핵심적 학습목표로 표시된 247문항을 추출했고 정신질환별 간호문제는 간호과정으로 통일시켰으며 지역사회간호 부분은 제외해 최종 138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소분류 138문항에 대해서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정신병원 6곳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 12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대상자 중에 6명은 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자이며 8명은 정신건강간호사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에게 정신병원 간호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신간호교육에 대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 측정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96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간호교육 요구를 다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정리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5점,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간호교육 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8이었다.

4. 자료분석

1) 양적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정신간호교육 요구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과 의도 그리고 정신간호교육 요구는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2) 질적 자료분석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로 수집된 자료는 정신과 근무경력이 17년이 넘고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직접 면담하고 녹음하여 있는 그대로 직접 필사하였다. 필사된 내용은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정신간호학 교수와 함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선택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구분된 문장의 중심의미를 최종적으로 범주와 주제로 도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일개 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1040708-201710-SB-038-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전라남북도와 광주 및 대구의 300병상 이하 12개 사립정신병원을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간호부서장과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모든 설문내용과 동의서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정보 비밀보장 및 정보 수집과 이용,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보장과 참여 거부로 인한 불이익과 자발적 거부 및 철회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상자 식별 정보를 설문내용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고,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는 이중 잠금 장치에 보관하였다. 설문지 제출 후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심층 면담 대상자에게도 자발성과 익명성 보장, 그리고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관을 약속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소정의 답례를 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교육의 필요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성 89.2%, 기혼 64.1%이며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사이가 가장 많았고 평균 나이 38.5세, 학력은 학사 51.9%였다. 일반 간호사 67.5%,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 42.4%, 폐쇄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 69.7%, 정신과 근무경력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25.1%, 그리고 병상수는 201~300병상이 84.4%로 가장 많았다. 정신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26.0%, 교육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이상이 78.8%, 교육에 대한 참여 의향은 '어느 정도 있다' 이상이 74.9%로 나타났다(Table 1).

2. 정신간호교육 요구

정신간호교육 요구에 대한 대분류(17개)에서는 치료적 환경(4.27 ± 0.76)이 가장 높았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4.18 ± 0.68), 치료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4.17 ± 0.64), 인간존중(4.11 ± 0.74), 신경인지장애(4.07 ± 0.74), 수면장애(4.07 ± 0.77), 인격장애(4.07 ± 0.69), 정신건강의 이해(4.06 ± 0.58)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교육 요구가 낮은 것은 인간의 이해(3.71 ± 0.64), 식사 관련 장애(3.89 ± 0.77), 성 장애(3.92 ± 0.78),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장애(3.93 ± 0.76), 정신간호의 이해(3.93 ± 0.56) 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46개)는 알코올중독(4.29 ± 0.64), 치료적 환경의 이해(4.27 ± 0.76), 치료적 의사소통(4.23 ± 0.71), 불안 개념(4.15 ± 0.69), 정신건강과 스트레스(4.15 ± 0.79), 정신건강의 원리(4.12 ± 0.65), 치료적 인간관계(4.11 ± 0.66), 인권 옹호(4.11 ± 0.74), 정신치료 기법(4.10 ± 0.63), 섭망(4.09 ± 0.77) 순으로 나타났다. 소분류(96개)는 약물치료와 관련된 간호와 수행(4.41 ± 0.73), 중독의 위험성과 교육(4.35 ± 0.73),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법 활용(4.34 ± 0.73), 알코올 관련 장애의 행동특성(4.32 ± 0.72),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4.30 ± 0.75), 물질중독 치료적 환경(4.29 ± 0.78),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4.28 ± 0.76), 치료적 환경 조성(4.27 ± 0.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분류를 중심으로 중분류 및 소분류의 관계를 살펴보면, 치료적 환경은 중분류의 치료적 환경의 이해가 포함되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중분류의 알코올중독, 소분류의 중독의 위험성과 교육, 알코올 관련 장애의 행동특성,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물질중독 치료적 환경이 포함된다. 치료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은 중분류의 치료적 의사소통과 치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Necessary of Participants (N=23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 \pm SD
Gender	Women	206 (89.2)
	Men	25 (10.8)
Marital state	Married	148 (64.1)
	Single	81 (35.1)
	Others	2 (0.8)
Age (year)	≤ 30	66 (28.6)
	31~40	71 (30.7)
	41~50	62 (26.8)
	≥ 51	32 (13.9)
		38.5 \pm 10.50
Education	Diploma	76 (32.9)
	Bachelor	120 (51.9)
	\geq Master	35 (15.2)
Nurse position	Staff nurse	156 (67.5)
	Charge nurse	20 (8.7)
	Head nurse or administrative manager	55 (23.8)
Certificate of mental health nurse	No	133 (57.6)
	Yes	98 (42.4)
Ward type	Open ward	44 (19.0)
	Closed ward	161 (69.7)
	Outpatient and others	26 (11.3)
Psychiatric career (year)	≤ 1	39 (16.9)
	$> 1 \sim 3$	58 (25.1)
	$> 3 \sim 5$	31 (13.4)
	$> 5 \sim 10$	40 (17.3)
	$> 10 \sim 20$	54 (23.4)
	> 20	9 (3.9)
The number of beds	≤ 100	25 (10.8)
	101~200	11 (4.8)
	201~300	195 (84.4)
Educ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d	No	60 (26.0)
	Yes	171 (74.0)
Necessary for education?	Not required at all	1 (0.4)
	Unnecessary	5 (2.2)
	Average	43 (18.6)
	Necessary	121 (52.4)
	Very necessary	61 (26.4)
		4.02 \pm 0.76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ducation	Not at all	2 (0.8)
	Not much	11 (4.8)
	Average	45 (19.5)
	Participate some extent	109 (47.2)
	Participate very much	64 (27.7)
		3.96 \pm 0.86

적 인간관계, 소분류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법 활용과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포함되며 인간존중은 중분류에서 인권 옹호, 신경인지 장애는 중분류에서 섬망이 포함되었다(Table 2).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의향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은 학위($F=3.15, p=.045$), 직위($F=5.46, p=.005$), 자격증 유무($t=-2.64, p=.009$) 그

리고 교육 참여 경험($t=-4.15,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 참여 의향은 성별($t=5.01, p=.026$), 나이($F=5.66, p=.001$), 직위($F=7.60, p=.001$), 자격증 유무($t=-1.99, p=.047$) 그리고 교육 참여 경험($t=-4.08,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에서는 일반 간호사 보다는 수간호사 또는 관리자가 교육의 요구와 참여 의향이 높았다. 그리고 나이는 30세 이하보다 41세에서 50세 사이가 교육 참여 의향이 높았다(Table 3).

Table 2. Demands for Mental Health Nursing Education

(N=231)

Variables	Items	M±SD	Min	Max	Relation [†]
Major category (total)	1. Therapeutic environment	4.27±0.76	2	5	B/h
	2. Substance 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4.18±0.68	2	5	A/b,d,e,f
	3.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4.17±0.64	2	5	C,G/c,g
	4. Respect for human	4.11±0.74	2	5	H
	5. Neurocognitive disorders	4.07±0.74	2	5	J
	6. Sleep disorders	4.07±0.77	2	5	
	7. Personality disorders	4.07±0.69	2	5	
	8. Understanding mental health	4.06±0.58	2	5	
	9. Mood disorders	4.02±0.79	1	5	
	10. Schizophrenia and others	4.01±0.81	2	5	
	11. Anxiety related disorders	4.01±0.69	1	5	D/i
	12. Family environment	4.00±0.64	2	5	
	13. Understanding mental nursing	3.93±0.56	2	5	F/i, I/a
	14. Child and youth-related mental disorders	3.93±0.76	2	5	
	15. Sexual disorders	3.92±0.78	2	5	
	16. Eating disorders	3.89±0.77	1	5	
	17. Understanding human	3.71±0.64	2	5	E
Subcategory (top 10)	A. Alcoholism	4.29±0.64	2	5	
	B. Understanding the therapeutic environment	4.27±0.76	2	5	
	C. Therapeutic communication	4.23±0.71	2	5	
	D. Anxiety	4.15±0.69	1	5	
	E. Mental health and stress	4.15±0.79	1	5	
	F. Principles of psychiatric nursing	4.12±0.65	2	5	
	G. Therapeutic relationship	4.11±0.66	2	5	
	H. Human rights advocacy	4.11±0.74	2	5	
	I. Psychotherapy technique	4.10±0.63	1	5	
	J. Delirium	4.09±0.77	2	5	
Sub-sub-category (top 10)	a. Perform tasks related to medication	4.41±0.73	2	5	
	b. Educate the risk of addiction	4.35±0.73	2	5	
	c. Use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4.34±0.73	2	5	
	d. Describ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lcohol-related disorders	4.32±0.72	2	5	
	e. Identify the effect of alcohol on the body	4.30±0.75	2	5	
	f. Create a therapeutic environment for substance abusers	4.29±0.78	2	5	
	g.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4.28±0.76	2	5	
	h. Provide a therapeutic environment	4.27±0.76	2	5	
	I. Respond according to the degree of anxiety of the subject	4.27±0.74	1	5	
	j. Deal with abnormal behavior of the subject	4.23±0.75	2	5	

[†] Relationship between major category, subcategory, and sub-sub-category.

Table 3. Educational Needs and Participation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Needs for education?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ducation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Women	206	4.05±0.72	2.40	4.00±0.82	5.01
	Men	25	3.80±1.00	(.123)	3.60±1.12	(.026)
Age (year)	≤ 30 ^a	66	3.86±0.86	2.55	3.64±0.97	5.66
	31~40 ^b	71	3.99±0.69	(.057)	3.97±0.76	(.001)
	41~50 ^c	62	4.23±0.73		4.23±0.84	a < c
	≥ 51 ^d	32	4.03±0.70		4.09±0.69	
Education	Diploma	76	3.99±0.76	3.15	3.89±0.86	2.04
	Bachelor	120	3.96±0.75	(.045)	3.93±0.86	(.133)
	≥ Master	35	4.31±0.76		4.23±0.84	
Nurse position	Staff nurse ^a	156	3.92±0.78	5.46	3.84±0.91	7.60
	Charge nurse ^b	20	4.00±0.73	(.005)	3.85±0.67	(.001)
	Head nurse & manager ^c	55	4.31±0.66	a < c	4.35±0.65	a < c
Certificate of mental health nurse	No	133	3.91±0.78	-2.64	3.86±0.92	-1.99
	Yes	98	4.17±0.70	(.009)	4.09±0.76	(.047)
Ward type	Open ward	44	4.09±0.74	0.25	4.11±0.66	0.89
	Closed ward	161	4.00±0.77	(.777)	3.93±0.90	(.414)
	Outpatient & others	26	4.04±0.77		3.88±0.95	
Psychiatric career (year)	≤ 1	39	3.87±0.70	0.69	3.74±0.82	0.76
	> 1~3	58	4.07±0.86	(.628)	4.03±1.04	(.577)
	> 3~5	31	4.00±0.63		4.00±0.68	
	> 5~10	40	3.95±0.90		3.90±0.96	
	> 10~20	54	4.11±0.69		4.06±0.74	
	> 20	9	4.22±0.44		4.00±0.5	
Educ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No	60	3.68±0.83	-4.15	3.58±0.96	-4.08
	Yes	171	4.14±0.70	(< .001)	4.09±0.78	(< .001)

4. 대상자 직무에 따른 대분류의 정신간호교육 요구

대분류 상위 8개 항목에 대해서 대상자의 정신과 경력, 직위 그리고 자격증 유무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근무 경력과 직위에 따른 정신간호교육 요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는 인간존중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10, p=.037$),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인간존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5. 포커스 그룹 연구참여자의 정신간호교육 요구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간호교육은 5개의 범주로 ‘변별력’, ‘소통기법’, ‘정신과 약물’, ‘대처방법’, ‘법적 문제’였다(Table 5).

1) 변별력

변별력과 관련된 3개의 주제는 ‘정상과 증상’, ‘증상과 약물 부작용’, 그리고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였다. 참여자들은 환자와의 대화에서 진위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헷갈리고 당황스럽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호소하는 문제 역시 있을 수 있는 문제인지 또는 병의 증상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병의 증상과 약물의 부작용, 신체적 문제인지 심리적 문제인지 명확하게 변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변별을 잘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감이 부족함을 느꼈고, 변별력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자 변별해야 하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정신간호교육을 요구하였다.

환자들이 호소하는데 이게 정신적 증상인지, 신체적 증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제일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환자 한 분이 정신적 증상으로 복통을 자주 호소

Table 4. Mental Health Nursing Education on Major Category according to Subjects' Job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TE	SA	TC	RH	ND	SD	PD	UMH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Psychiatric career (year)	≤1	39	4.31±0.83	4.11±0.69	4.10±0.58	4.04±0.69	4.01±0.77	4.13±0.86	3.98±0.67	4.02±0.60
	>1~3	58	4.07±0.83	4.11±0.76	4.03±0.75	3.92±0.84	4.00±0.73	4.02±0.78	4.08±0.74	3.91±0.65
	>3~5	31	4.48±0.72	4.35±0.59	4.32±0.63	4.15±0.71	4.23±0.75	4.19±0.70	4.29±0.68	4.24±0.59
	>5~10	40	4.35±0.70	4.18±0.66	4.15±0.53	4.23±0.70	4.00±0.77	3.93±0.73	4.01±0.58	4.12±0.52
	>10~20	54	4.22±0.66	4.21±0.69	4.24±0.63	4.19±0.70	4.15±0.72	4.09±0.81	4.04±0.72	4.09±0.52
	>20	9	4.56±0.73	4.23±0.56	4.42±0.41	4.44±0.68	4.17±0.71	4.33±0.50	4.12±0.78	4.19±0.38
	F (p)		0.83 (.530)	0.58 (.717)	0.94 (.456)	2.02 (.077)	0.79 (.562)	1.16 (.331)	1.49 (.194)	1.58 (.167)
Nurse position	Staff nurse	156	4.24±0.81	4.18±0.68	4.13±0.65	4.08±0.78	4.07±0.73	4.10±0.77	4.09±0.65	4.06±0.59
	Charge nurse	20	4.30±0.57	4.29±0.72	4.17±0.68	4.08±0.57	4.07±0.77	4.15±0.75	4.01±0.73	4.13±0.52
	Head nurse & manager	55	4.32±0.67	4.16±0.69	4.27±0.59	4.20±0.68	4.07±0.76	3.98±0.80	4.01±0.79	4.05±0.58
	F (p)		0.26 (.769)	0.30 (.741)	1.03 (.360)	0.58 (.561)	0/1	0.55 (.579)	0.37 (.692)	0.15 (.862)
Certificate of mental health nurse	No	133	4.22±0.81	4.18±0.69	4.11±0.67	4.02±0.73	4.06±0.75	4.09±0.78	4.09±0.69	4.03±0.60
	Yes	98	4.34±0.69	4.19±0.67	4.24±0.59	4.23±0.74	4.09±0.72	4.05±0.76	4.04±0.69	4.11±0.54
	t (p)		-1.17 (.242)	-0.08 (.937)	-1.55 (.124)	-2.10 (.037)	-0.32 (.748)	0.38 (.704)	0.60 (.550)	-1.07 (.285)

TE=therapeutic environment; SA=substance 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TC=therapeutic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RH=respect for human; ND=neurocognitive disorders; SD=sleep disorders; UMH=understanding mental health.

Table 5. Contents Analysis of Mental Health Nursing Education in Focus Group Participants

Category	Subject
Discrimination power	· Normal responses versus symptoms · Symptoms versus side effects of drugs · Physical versus psychological problems
Communication skills	· Psychological support · Non-reactive relationship formation
Psychiatric medication	· Drug action and adverse effects · Dose of drug
Coping methods	· Sudden emotional change · Unexpected self-injury · Physical emergency · Aggressive behaviors
Legal issues	· Legal processes · Use of restraint

하시는 분인데 그 복통이 진짜 신체적 증상인지, 아니면 정신적 증상으로 그냥 호소하시는 것인지 그럴 때 구별이 잘 안 됐어요.(포커스 그룹 2)

2) 소통기법

소통기법의 주제는 2개로 '심리적 지지'와 '반응적이지 않은 관계 형성'이었다.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간호사 역할을 바랐다. 환자들에게 편안한 심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원했고 간호사는 자기 생각을 오해 없이 온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또한, 환자의 말에 역전이 또는 역반응이 생

겨 부정적 감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여 도움이 되는 치료적 관계 형성을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들을 알고자 하였다.

저는 의사소통하는 기술과 지식과 관련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무를 해보니까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은 것도 환자분들은(증상 때문에) 안 좋게 듣고 반응하니까요. 나쁜 뜻으로 하지 않는 것도 오해하니까요.(포커스 그룹 1)

3) 정신과 약물

정신과 약물의 주제는 2개로 '정신과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적정량'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 작용과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적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였다.

정신과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물이 어떤 작용을 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어느 정도 약이 들어가야 적정선이 맞는지 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환자는 너무 sedation 돼버리고 어떤 환자는 방방 뜨는 경우가 있어 약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포커스 그룹 1)

4) 대처방법

대처방법의 주제는 4개로 ‘갑작스러운 감정변화’, ‘돌발적 자해행위’, ‘신체적 응급상황’ 그리고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갑작스러운 감정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 자해 또는 타해 행위 그리고 신체적 응급상황과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였다.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분이 달려와 간호사 스테이션에 머리를 박아 피가 많이 나서 suture를 했거든요. 정신과에서 처음 일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놀랐어요. 그것 말고도 돌발 행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포커스 그룹 2)

5) 법적 문제

법적 문제의 주제는 2개로 ‘법적 절차’, ‘강박 수행’이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의, 동의, 보호, 응급, 행정 입원 등의 차이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정신장애인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면서 강박하는 절차와 기록 등이 법적인 문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였다.

(강박 처치) 정신과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환자나 치료진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입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배우지 않고 일하잖아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포커스 그룹 1)

논 의

본 연구는 300명 이상 사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혼합연구를 통해 정신간호교육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립정신병원 간호사를 위한 정신간호교육 요구의 특성을 파악 및 이해하고 교육과 직무 기술서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정신간호교육 요구에서 대분류는 ‘치료적 환경’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치료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인간존중’, ‘신경인지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중분류와 소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료적 환경에 대한 이해’, ‘약물과 관련된 간호’, ‘알코올중독’, ‘치료적 의사소통’, ‘인권 옹호’, ‘섬망’, ‘수면 장애’ 등이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정신과 내의 응급상황에서의 치료적 환

경과 복합된 문제를 가진 알코올중독자 그리고 최근에 정신장애 인권 강화에 따른 교육 등으로 임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 중심으로 정신간호교육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신병원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신간호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는 없고, 일반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신과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15]에서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치료적 의사소통, 정신질환 약물, 정신질환 증상 등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 인권 옹호, 섬망, 수면장애 등이 새롭게 언급되었다. 이는 사립정신병원의 특성과 최근의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대분류 중 치료적 환경에 대한 정신간호교육 요구가 경력과 직위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가장 높았다. 치료적 환경은 정신과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응급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는 질적연구결과의 ‘대처방법’에 해당하며, 연구참여자들은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감정변화’, ‘돌발적 자해행위’, ‘신체적인 응급상황’, ‘공격적 행위’ 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받고자 하였다. 정신과에서 잠재적인 응급상황은 간호사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며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높이게 된다[15].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16,17]. 정신병원에 중간 경력자가 부족하다는 Kim [2]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3년에서 5년 사이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립정신병원 중간 경력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정신과 외에 임상 경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규적으로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상황별 대처방법을 구체적인 사례 또는 표준화환자를 활용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대분류 중 두 번째 높은 물질 관련 중독 장애의 중분류는 알코올중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3년 초과 5년 이하 대상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립정신병원들이 알코올 병동을 없애거나 금연 병동을 운영하면서 알코올중독 환자가 사립정신병원으로 대거 이동하여 사립정신병원은 조현병 다음으로 알코올중독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교육 요구는 선행연구[15]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사립정신병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규 간호사의 경우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 특히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였다[18]. 따라서 알코올중독자가 인격장애, 수면장애, 섬망 등이 공존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분류 중 세 번째는 치료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정신과 경력이 증가할수록, 병동에 책임간호 사직을 맡으면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평균이 높았다. 정신과 간호사의 주된 업무는 면담을 통한 치료적 관계 형성이므로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2,19-21]. 이 결과는 질적연구의 ‘소통기법’에 해당하며, 연구참여자들은 환자와의 원활한 관계와 간호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배울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대분류 중 네 번째는 인간존중이며 구체적으로 인권 옹호로 확인되었다.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고,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정신과 경력이 쌓일수록 평균은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들은 자신의 간호행위에 대한 딜레마나 인권침해 여부를 계속 자문하게 되는데[22], 이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경력이 쌓일수록 정신장애인을 단순히 환자로만 보기보다는 한 인격체로 이해하려는 관점과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결과로 생각한다. 따라서 경력자를 대상으로 정신간호교육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통해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추천한다. 이 결과는 질적연구의 ‘법적 문제’에 해당하며, 최근에 개정된 법에 따른 법적인 절차, 격리·강박의 절차나 기록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받고자 하였다.

다음 대분류는 신경인지장애이며 구체적으로 섬망 및 수면 장애가 있었다. 섬망은 급성 뇌부전 상태로 총체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23]으로 간호사에게 준 응급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수면장애는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반복적인 문제로, 간호사들은 만성적이고 호전되지 않는 증상의 반복에 의학적 한계를 느끼며 간호사로서 허탈감과 소진, 무기력으로 환자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24]. 따라서 섬망과 수면장애 자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다음은 소분류에서 가장 높은 정신간호교육 요구는 약물치료와 관련된 간호이다. 이 결과는 질적연구의 ‘정신과 약물’에 해당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처방된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약물의 적정량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있었고 약물에 대해서는 ‘변별력’ 범주에서 증상과 약물 부작용의 구별에 대한 교육 요구가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교육의 욕구와 참여 의향에서 모두 나이가 많은 경우, 책임간호사직을 맡으면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높았다. 정신과 경력자일수록 신규 간호사보다 정신간호와 정신간호를 제공하는 직무에 더 만족하며 환자와 후배 간호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계속 배워야 한

다[25]고 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이 정신과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5, 11,26,27]. 정신과는 인간 심리를 다루는 분야로서 정신과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쌓일수록 간호사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호남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자료수집이 되었으므로 연구해석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에서 다른 임상 경력자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정신과 외 임상경험이 정신과 근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교육요구의 차이에 관해 추후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사립정신병원의 효과적인 직무교육을 위해 현재 국립정신병원 또는 보건소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이버 교육의 형태를 제언한다. 넷째, 사립정신병원과 국립 또는 종합병원 정신간호사의 교육 요구의 차이를 비교·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한국 정신간호학회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연구 활동과 정신간호 교육 목표를 설정해줄 것을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사립정신병원 간호사의 직무에 따른 정신간호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간호사의 역량 강화와 직무 기술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립정신병원의 간호사들은 정신과 경력이나 직위와 관계없이 치료적 환경에 대한 교육 요구가 가장 강했고 다음은 알코올중독, 치료적 의사소통, 인간존중, 신경인지장애(섬망), 수면장애 순이었다. 정신간호교육에 대한 요구는 경력이 쌓일수록 책임간호사직을 맡는 경우, 그리고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인권 옹호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따라서 정신과 경력이 낮은 연차에서는 병동의 응급상황과 환자 문제 중심의 교육을, 경력이 높은 연차에서는 인간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ORCID

An, Hyo-Ja

<https://orcid.org/0000-0002-1890-4062>

Bae, Yeongju

<https://orcid.org/0000-0003-3224-0888>

Cho, Myeong Suk

<https://orcid.org/0000-0001-5425-7280>

REFERENCES

1. National Center Mental Health. National mental health statistics. 4th pilot study. Seoul: Gwangjin; 2018 December. Report No. 11-1352629-000024-01.
2. Kim HJ. Exploration of the experience of work environment in Korean psychiatric nurses working in ment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5;24(1):61-72.
<https://doi.org/10.12934/jkpmhn.2015.24.1.61>
3. Ju HG, Lee KJ, Kim HS.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program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b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3;22(3):169-179.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3.169>
4. Shin HJ, Kim KH. Emotional labor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n Korean psychiatric nurs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5;35(4):190-216.
<https://doi.org/10.15709/hswr.2015.35.4.190>
5. Lee DE, Suh TW, Lee TK, Park JI, Hong JP, Kwon SH, et al. An estimation of optimal medical manpower in ment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5;44(5):560-567.
6. Gang HM. Cleaning up patient care?... "Psychiatric hospital workers are hard". *BeMinor*. 2016 July 7.
7. Hwang J, Bae J. Influence of mental health nurse's moral di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7;26(4):325-332.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4.325>
8. Kim MR, Seomun GA. Relationships among burnou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o resign in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3;22(2):93-101.
<https://doi.org/10.5807/kjohn.2013.22.2.93>
9. Kwon KJ, Chu MS, Kwon JA, Kim JA. The impact of work environment and mood state on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of psychiatric wa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009;16(3):323-332.
10. Baum A, Kagan I. Job satisfaction and intent to leave among psychiatric nurses: closed versus open ward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015;29(4):213-216.
<https://doi.org/10.1016/j.apnu.2015.03.004>
11. Shin SH, Jang KS.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strategy on job burnout and job engagement in psychiatric nurse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2016;42(4):33-43.
12. Yang YK.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work environment on job satisfaction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5;24(4):226-235.
<https://doi.org/10.12934/jkpmhn.2015.24.4.226>
13. Lee HC, Kim YC, Kim KS. Mixed methods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Gyeonggi-do: Academy-press; 2013. 193 p.
14. Kim HJ, Kim CN. Review of literatures on focus group method in qualitative study.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2001;5(1):1-21.
15. Jang MY, Shin SH. Care burden for mental illness patients,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and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in non-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7;26(1):55-66.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1.55>
16. Jang SG. 94% of asylum doctors and nurses experience assaults on patients. *Mediatoday*. 2016 July 8.
17. Alsaraireh F, Quinn Griffin MT, Ziehm SR, Fitzpatrick JJ.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Jordanian nurses in psychiatric uni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2014;23(5):460-467. <https://doi.org/10.1111/inm.12070>
18. Kim MY, Ha SJ, Jun SS. The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as novice psychiatric nurses in hospital. *Global Health and Nursing*. 2018;8(1):17-28.
<https://doi.org/10.35144/ghn.2018.8.1.17>
19. Jordan TR, Khubchandani J, Wiblehauser M. The impact of perceived stress and coping adequacy on the health of nurses: a pilot investigation.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2016;2016:1-11. <https://doi.org/10.1155/2016/5843256>
20. Koekkoek B, van Baarsen C, Steenbeek M. Multidisciplinary, nurse-led psychiatric consultation in nursing homes: a pilot study in clinical practic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2016;52(3):217-223. <https://doi.org/10.1111/ppc.12120>
21. Tsaras K, Daglas A, Mitsi D, Papathanasiou IV, Tzavella F, Zyga S, et al. A cross-sectional study for the impact of coping strategies on mental health disorders among psychiatric nurses. *Health Psychology Research*. 2018;6(1):9-15.
<https://doi.org/10.4081/hpr.2018.7466>
22. Noh D, Kim S, Kim S. Moral distress,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climate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3;22(4):307-319.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4.307>
23. Bae JH, Kang WS, Paik JW, Kim JW. Changing trends in the occurrence and management of delirium for 5 years in a university hospital.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2012;20(2):112-119.
24. Kim M. A study on a psychiatric nurse's mannerism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7;26(3):301-312.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3.301>
25. Kurjenluoma K, Rantanen A, McCormack B, Slater P, Hahtela N, Suominen T. Workplace culture in psychiatric nursing described by nurse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

- 2017;31(4):1048-1058. <https://doi.org/10.1111/scs.12430>
26. Lee SN, Yoo E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 of clinical supervision b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7;26(2):174-185.
-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2.174>
27. Lee SH, Lee EJ. Influence of nurs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y in medium sized hospital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8; 24(3):336-346. <https://doi.org/10.22650/JKCNr.2018.24.3.336>